

문화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

개념 적용 문제 정답과 해설



1. 논리적 독법

정답 | 본문 21쪽

01 있는 그대로 읽기

01 ③ 02 ④ 03 ④ 04 ⑤ 05 ③ 06 ① 07 ③

01 시어의 의미

답 ③

㉠ ‘있’의 의미가 뭘까요? 문학의 언어를 읽는 법에서 제1원칙과 제2원칙을 생각하세요. 언어는 또 다른 언어로 설명된다. 그리고 나와 있는 언어로 설명한다. ‘있’이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 ‘여기저기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을 찾으면 답이 됩니다. ㉡ ‘이슬’ — 스러지는 것! ㉢ ‘하늘’은 화자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 ‘새벽빛’은 ‘와서 닿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구름’은 손짓하는 것이고, ㉥ ‘소풍’은 화자가 끝내는 것. 언어를 나와 있는 언어로만 설명하니까 쉽죠?

02 시어의 관계

답 ④

조금 난해하죠?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읽는다! ‘언어는 또 다른 언어로 설명된다!’ 이 원칙 아래 살펴볼까요?
1연에서 ‘나’가 가는 곳 어디에나 ‘백일(해)’은 있다고 했어요. 2연에서 ‘나’는 아주 오래된 옛적부터 남겨진 풍속(유풍) 그대로 ‘성신(별)’과 더불어 잠자고, 3연에서는 생명과 생명에 속한 것을 ‘열애(열렬히 사랑)’하되 ‘애련(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애련’은 화자에게 치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4연에서 ‘나’의 원수와 원수에게 아침하는 자에게 ‘가장 옳은 증오’를 준비했다고 하겠죠? 따라서 ‘증오’는 가장 옳은 것으로 ‘나’가 준비한 것입니다. ‘증오해야 할 것에 증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옳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수와 대결하기 위해서는 나약한 ‘애련’과 같은 감정에 빠지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증오’야말로 대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뜻이죠.
5연에서는 마지막으로 본 태양이 ‘동공(눈동자)’에 해바라기처럼 박힌 채 ‘불의(뜻하지 않게)’에 짐승처럼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6연에서 이 거룩한 ‘일월’에 무슨 ‘회한(후회)’인들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서 후회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대결 의지를 보이는 시죠? 따라서 ‘나’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증오’이며 가장 경계하고 꺼려 하는 것은 ‘애련’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답이 좀 의외였죠? 이처럼 ‘있는 그대로’ 읽어야 답이 보인다는 사실!

03 시어의 의미

답 ④

‘산’은 약자와 강자가 투쟁하는 장소이며 침묵만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런데 ④에서는 산이 ‘침묵’을 지키는 존재로 의인화되어 덕성이 부각되는 곳이라고 했으니 틀린 것이죠.
①, ③ ‘산’은 다양한 존재들을 포용하고 있는 거대한 공동체의 세계로, 선과 악이 공존하며 갈등하고 투쟁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화자는 선과 악의 대결을 부정하고 평화와 공존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② ‘산이여!’ 하고 화자가 부르고 있으므로 실체는 독백이지만 말을 건네는 형식, 즉 대화체입니다.
⑤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날이 ‘아직 오지 않은 날’이라는 뜻이므로, 현재는 부정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04 시어의 의미

답 ⑤

〈보기〉의 ‘해’를 나와 있는 언어로만 설명할 수 있나요? ‘고운’ 것이며, ‘숫아야 할 것’이죠. 제시된 시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산’은 ‘여우, 사슴, 토끼 등 무수한 짐승을 지닌 곳’으로 오랜 세월 침묵만이 있는 곳이죠. 그곳은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며 ‘핏내’(마지막 행에 보이죠?)가 있는, 즉 싸움과 투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 ‘침묵’만이 존재하는 답답한 곳이죠. 그러니까 ‘산’을 기다릴 수는 없겠죠?
㉢ ‘구름’은 ‘산 너머’가 안 보여 ‘내 마음이 똥똥 타고 있는 대상’입니다.
㉣ ‘사슴’은 ‘토끼’와 더불어 ‘산’의 표상이며, ‘여우’, ‘이리’ 등과 대조적 의미로 쓰였습니다.
㉤ ‘화염’은 ‘확 확 치밀어 오를 것’이며 ‘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에서 일어나는 투쟁과 갈등을 끝낼 수 있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화염’입니다. 이 ‘화염’은 핏내(싸움)를 잊고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함께 즐거이’ 댈 수 있는 원리나 힘이며, ‘나’가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을 바람직한 것입니다. 어때요? ‘화염’은 좋은 거죠? 불은 무조건 ‘뜨겁고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큰 일납니다. 어떤 언어라도 작품에서 고정된 의미로 쓰이지 않으며, 앞뒤 연결 조건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05 시어의 의미

답 ③

나와 있는 언어로만 차례대로 설명해 볼까요?

㉠ ‘백구’는 ‘수고’를 하는 존재로, 서성이며 고기를 (공격하려고) 엿보는 대상입니다. 즉, 화자가 ‘나같이 군마음(쓸데없는 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쩌리’ 하고 충고하고 싶은 대상이면서 비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고전 시가에서 ‘백구’는 무조건 ‘친화’의 대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 알겠죠?

㉡ ‘삼공(三公)’은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냐’에서 아무리 귀해도 강산(자연)과 바꾸지 않을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삼공’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과 같은 정승(높은 벼슬)을 말합니다.

㉢ ‘청흥(淸興)’은 화자가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를 흔들질 제(낚싯대를 던지며 한가롭게 지낸다는 뜻) 갖는 한가로운 정서입니다. 좋은 거죠?

㉣ ‘만호후(萬戶侯)’는 ‘부럽지 않은 것’, ㉤ ‘문서’는 ‘헛글고 싣근 것’ 즉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것으로, ‘다 주어 내던지고’ 싶은 거니까 화자가 좋아하지 않는 것 맞죠?

그러니까 ‘청흥’만 화자가 추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화자가 거부하는 것이죠.

06 시어의 의미의 비교

답 ①

(가)에서 ‘물’은 3월에 눈이 올 때,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가 올리브빛으로 변한 것이죠. 그리고 ‘불’은 밤에 아낙들이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것으로 아궁이에 지피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 ‘물’과 ‘불’은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봄을 맞이하는 생명감과 관계가 있어요. ‘물’과 ‘불’이 자체로서 어떤 고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조건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나)를 볼까요? ‘물’이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는’ 생명의 상징이라면, ‘불’은 이와는 상반된 것으로 갈등과 파괴적인 삶을 상징하고 있어요. 화자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불’의 세계에서 만나려 한다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경우 ‘물’과 ‘불’은 대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07 시어의 의미

답 ③

까다롭게 보이는 문제이고 구구절절 해설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제는 작품을 우선 <보기>에 따라 있는 그대로 읽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시려니와 <보기> 내용을 잘 ‘읽어 내야’ 합니다. 특히 <보기>

의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의 속내’라는 말이 보이죠? 화자는 무엇을 주목하죠? 바로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하고 있죠. 그렇다면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선지 ③에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 극복의 주체를 화자라고 하여 틀린 것이죠. 이런 문제는 <보기>의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히 읽어 내는 독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보기>의 첫 문장에서 주어는 ‘화자’입니다.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체는 ‘화자’이고, 슬픔을 견디며 극복해 내려는 주체는 ‘(대합실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은 결국 ‘주어+서술어’, ‘수식어+피수식어’의 기본적인 연결 관계에 따라 작품을 읽는 방법을 중시하는 평가원의 출제 방식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죠.



1. 문학, 삶의 내용

정답 | 본문 35쪽

02 부정적 현실

01 ① 02 ⑤ 03 ① 04 ④

01 화자가 처한 상황

㉠ ①

고전 작품의 경우에도 역시 '부정적 현실'과 '괴로움'의 내용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 주는 문제입니다.

(가)는 '고운 님'을 이별하고(여희옴고) 쓴 시조입니다. 이별은 곧 '부재', '결핍', '결여'이며 '갈등', '고뇌'로 볼 수 있죠? 슬픈 '내 마음'처럼 '저 물도 울면서 밤길을 가는구나'라고 했어요.

(나)는 황진이이의 무덤(죽음, 부재) 앞에서 읊은 시조입니다. '홍안(예쁜 얼굴)'과 '백골(죽음)'은 대비되는 시어로, 종장에서 '이제 술잔을 권할 사람도 없으니 그것을 슬퍼한다'고 했어요.

(다)는 고려가 멸망하여 옛 궁궐이었던 '만월대'에 이제는 '가을의 풀(추초-秋草)'만 있는 것을 보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요.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란 고려 왕조 오백 년의 일을 말하는데, 이것은 온 데 간 데 없고 이제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동의 피리 소리(목적-牧笛)'에 담겨 있다(부쳐시니)'고 했으니 삶의 유한성과 무상함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세 편의 시조들은 모두 '대상(님, 홍안, 고려 왕조)'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①). 평가원에서 문학의 기본적인 창작 원리를 그대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죠?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 → '궁핍'은 가난하고 궁색한 것으로, 이별의 슬픔과는 거리가 멉니다.

③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 → 갑자기 이별이 찾아왔다거나, 이별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다는 언급이 나와야 합니다.

④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 →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삶과 죽음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경외감(敬畏感-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또한 드러나 있지 않죠?

⑤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 → 충효 윤리와 같은 자신의 신념 체계와 상반(배치)되는 현실의 갈등이나 실망은 없죠?

02 구절의 의미 이해

㉠ ⑤

(나)는 '홍안'은 없고 '백골'만 남아 있는 님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술잔을 잡아 권할 사람도 없으니 그것을 슬퍼한다고 하면서 상실의 아픔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각박한 세태'란 인정이 없고 모질고 이기적인 세상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나)에는 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만 나타날 뿐이죠. 또한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도 관계가 없죠?

①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 → 님과의 이별을 숫자(천만 리)를 통해 과장하여 표현했습니다.

②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 → 이별한 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물도 '내 마음'과 같이 울면서 간다고 했으니 맞는 말이지요?

③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 → 님과 이별한 암담한 심정을 '밤'으로 표현했어요.

④ 시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홍안'과 '백골'은 상반된 시어이며, 가고 없다는 사실에서 '무상감'을 알 수 있겠죠?

03 표현상의 특징

㉠ ①

〈이별가〉에 나타난 '괴로움, 슬픔'의 원인을 묻는 문제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문학의 본질적 측면에서 정확하게 해설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시의 경우, '이승'과 '저승'이라는 시어의 대비가 있어서 '대립적인 시어를 병치(並置-나란히 나옴.)한 것은 맞으나, 그것으로 인해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장의 앞뒤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죠? 만약 이 논리가 성립된다면 대립적인 시어만 병치하면 모든 현실의 모순이 다 해결될 텐데,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만나겠다는 기다림은 '극복의 의지'와 관련됩니다. (이것은 4번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드러나는 이별의 슬픔과 괴로움이 과연 '현실의 모순'에 속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의 '괴로움'은 죽음으로 인한 것, 즉 태어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기인하는데, 이것은 사회 제도의 모순이나 억압 체제와 같은 불합리한 사회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내재된 근원적인 것이죠. 다른 예로 월명사의 〈제망매가〉에

서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현실의 모순으로 인한 괴로움 때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앞뒤 인과 관계를 묻고 있지만 '죽음'은 '현실 모순'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알게 해 주는 귀한 자료입니다.

② 말끝을 감춤으로써 →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에서 말줄임표를 통하여 '저승에서라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③ 시어를 점층적으로 반복함으로써 → '뒤흔카노'가 1, 3, 5연으로 가면서 점점 늘어나 이별의 슬픔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어요.

④ 일상적 대화의 말투를 구사함으로써 → '니 뒤흔카노'와 같이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⑤ 사투리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 '뒤흔카노'와 같은 사투리를 활용하여 현실감과 반복을 통한 운율(리듬)감을 보여 주고 있어요.

04 시적 화자의 태도

㉮ ④

화자의 태도는 이별 앞에서 '저승에서라도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별을 수용한 후 저승에서라도 만나기를 기다림으로써 지금의 슬픔을 이겨 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④ '헤어짐의 상황을 받아들여 기다림으로 극복하고자 한다.'의 의미죠.

①에서 '지순(至純)'이란 더없이 순결한 것을 말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별의 슬픔과 기다림을 드러냈을 뿐이죠. 화자가 삶의 허무를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② '스스로를 고통 속에 던져서'나 ③ '영원으로 회귀'한다는 말 역시 이 작품과 거리가 멀죠?

⑤ '현실과 거리'를 둔다는 것은 현실에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것으로 이 작품의 내용과 맞지 않죠? '운명을 초월'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지 않아요. 단지 저승에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니까요.

03 갈등_자아와 현실의 괴리

01 ㉮ 02 ㉮ 03 ㉮ 04 ㉮

01 작가적 관점을 통한 작품 감상

㉮ ②

〈보기〉에 따르면 (가)는 도시 문명 속의 상실감, 소외감을 드러낸 작품이죠? 실제 (가)에서 화자는 찬란한 야경도 무성한 잡초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며 도시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즉 '내적 갈등' 상태에 놓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③에서 '불화'나 ④에서 '소외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에 비해 (나)는 〈보기〉에 나타나듯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드러낸 토속적인 작품이니까 '갈등'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러나 ②에서 (가)는 황혼 무렵의 황량한 도시 풍경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시간의 순환적 흐름'과는 거리가 멀고 (나) 역시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틀린 것이죠.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더욱 유심히 살펴봐야 할 내용은 바로 ③, ④에 나오는 '갈등' 관련 개념어들입니다.

02 시어의 의미

㉮ ②

〈보기〉에 나타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이고 또 하나는 '자아의 반응'이죠. 전자는 '갈등'을 의미하고 후자는 '주관적 정서'를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 '슬픈'은 기쁨이 아닌 상태이므로 갈등이며 자아와 세계의 분열, 괴리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관적인 정서이죠. 그런데 ㉮ '늘어진'은 고층 빌딩의 객관적인 모습이므로 자아의 분열이나 갈등도 아니고 주관적 정서도 아니죠? 그래서 ②가 답이에요. ㉮ '낯설은'은 도시의 거리를 친숙하게 느끼지 않는 상태로, 자아가 현실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즉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주관적인 정서이지요. ㉮ '궁허한'은 도시의 군중들을 보는 화자의 정서이면서 자아와 세계의 분열이며 갈등입니다. ㉮ '차—단한' 역시 '차디찬'의 의미로 '슬픈 신호처럼' 차갑기만 한 가로등의 '등불'을 의미하므로 화자의 소외감,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 역시 자아와 세계의 분열이고 갈등이며 주관적 반응입니다. 이 문제의 해설을 거듭 읽으면서 '갈등' 관련 개념어를 확실하게 익히도록 하세요.

03 소재의 기능

㉮ ②

'나'는 아내와의 갈등 끝에 집을 나오게 됩니다. 도착한 곳은 미쓰코시 옥상. 거기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기도 하고 인

생을 생각하기도 하죠. 이게 선지 ①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내려다봅니다. 이게 선지 ③이죠. ‘조감(鳥瞰)’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 ‘거리’가 피곤한 삶의 현장이자 헤어 나오지 못하는 곳임을 느끼며 갈등합니다.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바로 ‘괴리감’입니다. 그러나 갈 곳은 그곳밖에 없음을 느끼죠? 이것이 ④와 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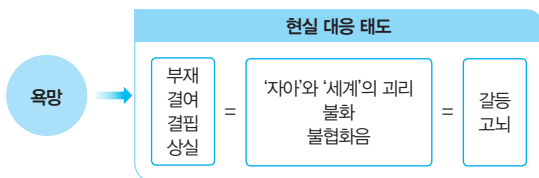
그러나 사이렌이 울리면서 ‘나’는 부정적 현실인 억압되고 폐쇄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이렌 때문이지 ‘미쓰꼬시 옥상’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A]에서 ‘나’가 있는 곳은 옥상이지만 그것 자체가 곧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②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문학은 갈등이자 부정적인 현실로, 자아와 세계의 괴리를 다룬다는 말 기억나죠? 이것이 그대로 출제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개념어들이 어김없이 우리 앞에 등장할 것입니다.

04 작품의 상징적 의미

답 ②

〈보기〉에 ‘불화’라는 용어가 보이죠? 이게 바로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의미합니다. 갈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 글에서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보기〉에 제시된 현대 문명(아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지식인(‘나’)의 행동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태도는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나오려고는 했지만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싶이’,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에서 보듯이 대응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결 의지는 틀린 말입니다.

1. ‘부정적 현실’은 바라는 것이 부재(不在)한 상태이며, 이것이 곧 갈등이고 고뇌입니다.
2. 이런 ‘상실과 결핍’의 상태는 문학 창작의 출발이 됩니다. 자아와 세계의 ‘불화’, ‘불협화음’, ‘부조화’가 동일어임을 인식하세요.

04 대응 방식

01 ④ 02 ⑤ 03 ⑤

01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

답 ④

(가)와 (나)는 각각 ‘갈대’와 ‘두만강’을 의인화해서 인격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삶의 근원적 속성으로서 ‘슬픔’을 드러낸 시예요. 삶이란 깊은 ‘울음’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삶의 본질적 의미를 성찰하고 있죠. 즉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④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나)는 삶의 터전을 잃고 국경을 건너가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화자가, 얼어붙은 강물 밑으로 쉬지 않고 흘러가는 두만강을 보면서 시련 속에서도 민족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어요.

① (가)는 삶의 슬픔을, (나)는 ‘얼음길은 거칠다’를 통해 험난한 부정적 현실을, (다)는 ‘이별’, ‘독수공방’을 통해 현재 외로운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두 고뇌와 갈등에 찬 부정적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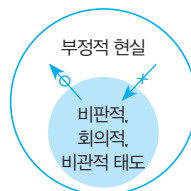
② (나)의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마음의 눈을 덮어 줄 검은 날개를 찾고 있어요. ‘검은 날개’는 화자를 위로해 줄 존재입니다.

⑤ (나)와 (다)에서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화자가 기대하는 바와 관련하여 변화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02 두 시의 공통점

답 ⑤

(가)에서 ‘담 저쪽의 나’는 ‘잃은 것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죠? 현재 ‘상실된 나’를 찾아 나서고 있으므로 부정적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나) 역시 누이를 잃은 상실의 슬픔을 ‘미타찰’에서 다시 만나고자 하는 의지로 극복하고 있죠? 둘 다 부정적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극복의 대응 방식을 보여 주고 있어요. 현실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모두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지는 않죠?



③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려면 앞으로 잘되리라는 확고한 믿음이나 기대가 나와야 합니다.

④ ‘인간과 자연의 대비’가 나오려면 화자(인간)와 자연이 처한 상황이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저 피꼬리는 정다운데

‘나’는 외롭구나, 이런 식으로요. 안 나오죠?

03 시적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 두 시 비교

답 ⑤

(가)에서는 파초를 돌보는 마음을 통해 겨울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나)에서는 누이동생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어요. 특히 (가)는 현재의 ‘겨울’을 이겨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삶의 추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로 볼 수 있어요. 반면 (나)에는 이러한 기대는 보이지 않죠? 현실에 대한 서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① ‘유화적(和的)인 태도’란 ‘너그럽게 대하여 화평하게 지내고자 하는 자세’이므로 맞지 않죠? (나)에 독단적 태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② ‘단정적인 태도’란 ‘~해야 한다’, ‘~하라’ 식의 단호한 태도가 나와야 합니다.

③ (가)에서 대상과의 관계 단절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나)에서 화자가 대상을 그리워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관계 형성을 위한 열망적 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④ (나)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절대적 거리감에서 화자의 비관적 태도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낙천적’은 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의미이므로 (가)에서 낙천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학은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바람직한 삶의 추구’란 화자가 현재 상황에서 ‘바라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설령 하찮은 것이어도 ‘화자에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죠? 이런 바람직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학은 거창한 사회와 국가 윤리적 내용의 표현으로 보지 말아야 해요. 그저 ‘사랑’이든 ‘돈’이든 ‘탈속’이든 ‘초월’이든 현재 상태에서 ‘화자가 바라는 것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 ‘바람직한 삶의 추구’에는 ‘소망’, ‘기대’, ‘그리움’, ‘기다림’, ‘비관적 태도’ 등의 내용들이 모두 포괄되므로 문학의 80%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는 표현’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정답 | 본문 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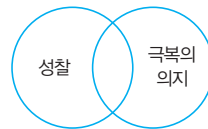
05 성찰

01 ④ 02 ⑤ 03 ⑤ 04 ③

01 시구의 의미

답 ④

화자는 ㉠에서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플라스틱처럼 자신도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인식은 ㉡ ‘퐁덩이처럼 느껴질 때’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처럼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거나, ㉣과 ㉤처럼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고 표현함으로써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요. 즉 ㉢, ㉣, ㉤은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소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현실을 비판한다거나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는 관련이 없답니다. 이 시는 자아의 삶을 다시 살려내고 싶은 성찰 의식이 핵심입니다.



02 시적 공간의 의미

답 ⑤

㉣ ‘털보네 대장간’은 낡은 ‘나’를 달궜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곳입니다. 마치 쇳덩이가 ‘낫’이나 ‘호미’로 태어나듯이 말이죠. 그래서 화자는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털보네 대장간에 가서 자신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무쇠 낫처럼 바꾸고 싶다고 말합니다.

03 두 시의 비교 감상

답 ⑤

성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속성을 묻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찰의 관심은 언제나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찰은 현실 세계로 확장되면서 비판하거나 관심을 현실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내면 의식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제시된 시에서는 ‘복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죠? 그리고 <보기> 또한 왜 ‘나’는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가를 성찰합니다. 결코 현실을 공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둘 다 성찰의 시이고 자아의 내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죠. 그러니까 ⑤에서 ‘<보기>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자아로 수렴되고 있다.’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제시된 시에서 ‘자아에 대한 성찰이 세계로 확장’된다는 말도 틀린 것이죠. 개념어 설명에서 제시한 네 가

지 성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익히기 바랍니다.

‘성찰’의 네 가지 의미

- (포괄적 의미) 자신을 되돌아봄. 삶에 대한 깊은 생각. 대상을 통해 삶의 의미를 살핌.
- 삶과 사물에 대한 깨달음. 발견
- 반성, 후회
- 갈등과 고뇌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짐.

②는 제시된 시의 ‘북어’나 <보기>의 ‘사령’이 모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죽음과 대비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즉, ‘북어’를 보면서 화자는 죽은 북어와 같이 경직된 인간들을 공격하다가 자신도 그와 같이 살아 있으나 실은 ‘죽은’ 인간이라는 성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화자는 ‘자유’ 앞에서 죽은 ‘영혼’과 다름없다고 자조함으로써 삶의 문제를 죽음과 대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작품 모두 삶과 죽음의 문제를 통해 주제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지요?

04 비평을 통한 작품 이해

답 ③

성찰의 본질적인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보통 얼굴을 비춰 보는 행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 성찰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시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시에서 ‘물낫 바닥’은 해염도 모르는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곳으로, 무지한 존재의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상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나 그 본질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화자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서의 성찰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때요? 성찰이란 개념을 공부한 보람이 있죠? ‘많이’, ‘열심히’보다는 ‘정확하고 날카롭게’……. 문학 개념어의 중요성이 새삼 느껴지는 문제였죠?

정답 | 본문 73쪽

06 초월, 탈속

01 ④ 02 ② 03 ④

01 구절의 의미

답 ④

‘북한산의 높이’란 단순히 해발 몇 미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고(孤高)한 높이’로서 세속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정신적 풍모를 의미합니다. 화자는 북한산에 눈이 살짝 덮인 모습에서 세속에 초연한 고상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북한산이 ‘가볍게 눈을 쓰고’ 있는 모습은 ‘원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④는 틀린 겁니다.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란 말은 곧 탈속적 삶의 태도임을 알 수 있겠지요?

① ‘열은 화장’은 눈이 살짝 쌓인 북한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② ‘차가운 수목’은 겨울 산의 모습을 그림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③ ‘신록’, ‘단풍’, ‘안개’는 겨울과 대비되는 때의 소재이고, ⑤ 가볍게 눈이 덮인 산 봉우리의 고고함은 ‘장밋빛 햇살’에 의해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02 두 작품의 공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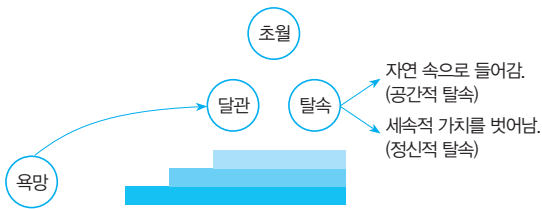
답 ②

‘탈속’과 ‘초월’의 개념을 잘 보여 주는 문제입니다.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도롱이, 샷갓’을 착용하고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통해 공간적, 정신적 탈속을 보여 줍니다. 한편 (나)는 자연 속의 삶은 아니지만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난 화자의 삶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볼 때 복숭아나무에 비해 잡목은 가치가 없고 이익이 되는 바도 없으나, 존재하는 것들은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며,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세속적인 가치를 초월하는 관점을 보여 줍니다. 이렇게 볼 때 (가), (나) 모두 세속적 이익을 좇지 않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탈속적 삶의 태도와 개념을 잘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① 대상에 대한 특별한 그리움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③ (가)에서 자연의 이미지와 인간의 세속적 삶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④, ⑤ 화자나 글쓴이가 현실의 고통을 자연에 의지해 잊고자 하는 작품은 없으며, 자신의 현실적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03 문맥에 어울리게 고쳐쓰기

답 ④

‘고고’의 개념을 살피볼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보기>는 글의 마지막 대목에 삽입할 시이므로, 그 내용이 글 전체와 어울리도록 해야겠죠? 그런데 <보기>의 초고는 학의 고고 함만이 주로 드러날 뿐이어서 삽입할 시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소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홀로 괴로이 우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지 못하여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고고한 삶’의 주인공은 이렇게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 하여 결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④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풍상 다 겪고도 기상 더욱 맑은데’라고 하면 시련을 겪은 수국의 속성과 어울리고, ‘그늘진 낮은 가지에 울음소리 그윽하네’라고 하면 겸허하면서도 고고한 수국의 속성과 어울리게 됩니다.

2. 문학의 정서

정답 | 본문 83쪽

01 정서, 정조

01 ④ 02 ⑤ 03 ④

01 작가적 관점을 통한 작품 감상

답 ④

정서는 상황 조건에서 형성된다고 했죠? 상황 조건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 그런데 <보기>에는 ‘난리, 굶주림, 자연 속에 집을 짓고, 세상이 기회를 주지 않았고, 가난한 생활, 그 속에서도 임금에게 충성’ 등과 같은 상황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쁜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단 ①, ⑤를 답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최악입니다. ‘태평시절, 무릉도원’은 즐겁고 만족스런 상황 이니까요.

② 떠나는 상황입니다. ③ 이제 - ‘백이’와 ‘숙제’ - 를 한탄 하며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너희들 왜 그랬니? 굶어 죽을 지언정 왜 고사리를 캐며 목숨을 연명했니? 풀일마정 그것이 누구의 땅에 났단 말인가.” 하며 횡포한 왕의 밑에서 사는 것은 치욕임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구차히 살았던 백이와 숙제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상황 조건에 맞는 것은 ④죠? ‘쓸 데 없어 세상이 버리오매’에서 버림받은 신세임을 알 수 있고, ‘일신이 한가할지나 님 못 뵈어 하노라.’에서 ‘님’을 생각함을 드러냅니다. ‘님’은 고전 문학에서 대부분 ‘왕, 임금’을 가리킵니다. 즉, 벼슬살이를 하지 못하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상황 조건 속에서도 화자는 여전히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때요? 쉽고 재미있죠? 정서 찾기는 곧 서술어, 수식어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을 목표까지 안내하는 핵심 길잡이입니다. 끝까지 하세요.

02 시어의 의미

답 ⑤

여러분, 세상은 많은 노력을 해야 겨우 조금 얻을 수 있는 고통스런 곳인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문학의 경우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을 보면 하나의 원리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거저 얻을 수 있죠. 이 문제만 해도 그래요. 자연물과 같은 대상을 통해서 정서를 드러낸다는 하나의 원리를 통해 그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④ 얼마나 노골적으로 원리 자체에 위배되는 내용입니까? 대상과 무관하게 정서를 드러내는 시란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이에 비해 ⑤ ‘귀뚜라’, ‘철쭉꽃’과 같은 자

연물, 즉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와 색채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설움의 정서를 환기한다는 내용은 시를 보지 않아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시상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그렇게 시가 끝난다는 말이에요.

②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이라는 말에서는 먼저 '주술'이라는 말을 알아야겠군요. '주술(呪術)'은 '초자연적 존재나 신비한 힘을 빌려 길흉을 점치고 화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연물에 그러한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물을 통해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효과가 나타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의 시와는 관련이 없지요?

03 시의 정서

답 ④

㉠에서 '쫓이 된 뻘 하나'는 이미 '불'에 타 버린 대상입니다. 뒤에 나오는 '세상에 불타는 것들'과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부정적 현실 속에서 고통을 받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쫓이 된 뻘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이 '쓰다듬다'라는 서술어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둘이 같은 처지에 있구나' 하고 짐작해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동병상련'의 정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④ 소 목덜미에 할머니가 손을 얹고 있습니다. 또 '함께', '서로 적막하다고'라는 말을 통해서 할머니와 소가 삶을 함께 살아가며, 똑같이 외롭고 적막한 처지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엷혀졌다'는 것은 '쓰다듬다', '만지다'와 연결, 대응되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 속에 상황 조건이 들어 있고 이것이 곧 정서입니다.

① 화자는 문간에서 서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정서는 '그대'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병상련과 연민을 느끼는 정서와는 거리가 멉니다.

② 눈 내리는 산골 마을을 묘사하면서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찾아올 것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시 동병상련의 정조와는 거리가 멀죠.

③ '백록담'에서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과 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과 인간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감을 보여 줍니다. 소와 말이 어울리는 한가로운 모습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세요.

⑤ 제목으로 봐서 '너'는 봄을 말하는 것이겠네요. 더디게 오지만 반드시 올 '봄'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시 ㉠의 정조와는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 정서는 상황 조건에서 비롯되고, 이것은 서술어, 수식어로 드러난다는 공식을 잊지 마세요. 이런 점은 이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간단명료한 해법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공부하세요.

08 정서 환기, 정서 심화

01 ② 02 ③

01 두 시의 비교

답 ②

②의 '성찰'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배웠죠? '자아'의 내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성찰이죠. 그렇다면 (가)와 (나)에 성찰의 태도가 드러나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가)의 화자는 시적 대상인 '여승'에 대한 정서를 표출하고 있지, 자신의 내면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가)에는 성찰의 태도가 없어요. 다음으로 (나) 역시 시적 대상인 '못 위의 제비'를 보며 어린 시절, 화자의 아버지의 삶과 그 내면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을 뿐, 화자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②는 적절하지 못한 설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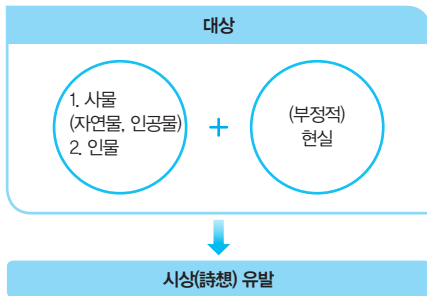
(가)에서는 '여승'이, (나)에서는 '제비'가 각각 시상을 유발하는 존재에 해당하므로 ①은 적절해요.

(가)의 화자는 1연에서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에 비해 (나)의 화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인, 못 위에서 꾸벅거리며 자고 있는 제비를 바라보며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어린 시절에는 몰랐다가 이제야 깨닫게 된, '아버지가 지냈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에 해당해요. 따라서 (나)는 (가)에 비해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③의 설명은 적절해요.

어조를 판단할 때에는 각 문장의 마지막, 즉 종결 어미를 살펴보아야 해요. (가)의 경우 격식체의 아주 낮춤에 해당하는 해라체인 '-다'로 끝나고 있어요. 해라체의 어조는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며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느낌을 주지요. 이에 비해 (나)는 '-버니다'라는 하십시오체와 '-요'라는 해요체를 쓰고 있어요. 특히 해요체는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어조이지요. 따라서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④의 설명은 적절해요.

(나)는 어떻게 창작하게 된 걸까요? 화자는 제비 집과 그 바로 옆의 못 위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제비 아버지를 봅니다. 이 '제비'가 바로 시상 유발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자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식구들을 위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고생하는 아버지를 바로 못 위에서 잠을 자는 제비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못 위의 제비'는 곧 화자의 아버지인 셈이죠? 이것은 '유추'로서

비유의 일종입니다. 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에서 ‘한 여자’의 창백한 모습을 ‘달빛의 창백함’으로 연결시켜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가)에서도 3연에서 여인의 남편을 ‘섭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둘 다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⑤도 적절한 설 명입니다.



02 갈등의 원인

답 ③

시에서 창작의 계기가 되는 것이 ‘시상 유발’이라면, 소설에서 갈등의 원인은 곧 작품 창작의 계기와 같습니다. 이 글은 일부다처제하에서 일어나는 가정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제시된 부분에서는 심 씨가 자신의 아들 화춘을 집안의 적장자로 굳히기 위해 무고한 전처의 자식들인 빙선과 화진을 학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심 씨가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죠? 빙선을 향해서 “네 년이 감히 흉심(凶心)을 품고 진이와 함께 장자(長子)의 자리를 빼앗고 나를 제거하고자”라고 한 부분과, 화진을 향해서 “네 이놈 진아, 네가 성 부인의 위세를 빙자하고 선친(先親)을 우롱하여 적장자(嫡長子) 자리를 빼앗고자 하나”라고 한 데서 알 수 있어요. ④는 이러한 심씨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행한 행동이니 그것을 답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출제하는 문제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09 분위기

01 ② 02 ① 03 ② 04 ③ 05 ③

01 소재의 기능

답 ②

여러분이 보기에 이 작품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분위기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색채로 보자면 밝나요, 어둡나요? 네, 어두운 이미지입니다. 석탄 가루가 동네 전체에 우중충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안촌(海岸村) 혹은 중국인 거리라고도 불리어지는 우리 동네는 겨우내 복풍이 실어날르는 탄가루로 그늘지고, 거무죽죽한 공기 속에 해는 낯달처럼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치마 밑으로 팔락이며 기어드는 사나운 봄바람도 모두 노오랬다. / 길의 양편은 가건물인 상점들을 빼고는 거의 빈터였다. 드문드문 포격에 무너진 건물의 형해가 썩은 이빨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메스꺼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끓어오르는 해인초의 거품도, 조개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해조(海藻)와 뒤섞이는 석회의 냄새도 온통 노란빛의 회오리였다.’

특히 위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볼 때, 이 작품의 분위기가 밝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위와 같은 감각적 표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이 작품은 이런 열악한 삶 속에서 보낸 그리 유쾌하지 않은 유년기의 체험을 쓴 글로, 분위기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소설입니다.

이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답은 ②입니다. 석탄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아이들이 석탄을 훔쳐서 먹을거리나 놀잇거리로 바꾸는 장면’, ‘할머니가 빨래를 하며 탄가루 때문에 불평하는 장면’, ‘선생님이 탄가루를 없애기 위해 아이들을 씻기는 장면’, ‘조개탄으로 해인초를 끓이는 장면’ 등이 있습니다. 이 지문에서 ‘석탄’은 여러 사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이며 사건들을 이어 주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석탄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선지 ①입니다. 분위기와 관련된 선지로, 이 글에서 ‘석탄’이 ‘작품의 분위기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생동감 있다는 말은 작품 전체가 밝고 명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슬픔, 절망이 아니라 희망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석탄과 관련된 일련의 체험을 통한 유년기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썼기 때문에 생동감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02 주요 이미지의 의미

답 ①

지문에서 치옥이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라고 소망을 말하고 있지만 이런 치옥의 말도 ‘나’에게는 ‘노오란 목소리’로 들리죠. 석탄 가루 날리는 열악한 환경 속의 유년기 체험이기 때문에 노란색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②의 ‘불안정한 분위기’, ‘낯섦’이며, ③의 ‘성장 과정의 부적응 상태’, 그리고 ④의 ‘몽롱한 의식 상태’입니다.

공복감과 산토닌, 그리고 해인초 냄새 등으로 ‘메스꺼움’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이는 것(⑤)으로 보아, 작품에서 ‘노란색’은 동네 아이들의 소망과는 거리가 멀고,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03 장르의 전환

답 ②

(가)는 매화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나)는 면앙정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데 구슬픈 배경 음악을 쓰면 안 되겠죠? (가)에서는 매화의 속성이 잘 드러나도록 은은한 배경 음악을, (나)에서는 자연을 즐기는 흥취가 잘 드러나도록 활기차고 경쾌한 배경 음악을 쓰는 게 분위기에 어울립니다. ④는 (가)의 경우 ‘달’이 나오니까 시간적 배경이 밤임을 알 수 있고, (나)의 경우 ‘어적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를 통해 낮에서 밤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낯’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황운(누런 곡식)’이 들판에 펼쳐진 모습은 낮에 볼 수 있는 풍경이겠죠?

① (가)에서 ‘잔 잡아 권할 적에’와 (나)에서 ‘남여를 재촉해 타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가)에서는 ‘양춘’이라는 시어를 통해, (나)에서는 시상의 흐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가)에서 ‘달’을 통해, (나)에서 ‘사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가)에서는 ‘동각’의 언급을 통해 한옥의 뜰이 연상되며, (나)에서는 남여를 타고 도달한 ‘백적 난간’의 상황을 통해 주변 풍경의 조망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04 구절의 의미

답 ③

역시 분위기 파악을 잘하면 쉬운 문제입니다. ㉠은 ‘되서 리가 걸힌 후의 산빛이 황금색 비단이로다.’라는 의미인데, 아름답게 단풍 든 산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황금색 비단 같은 산빛을 보면서 적막감을 느끼기는 어렵겠죠?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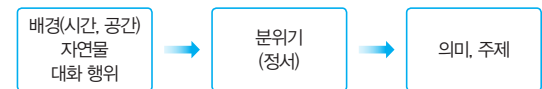
막감’은 고요하고 쓸쓸한, 외로운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만족스러운 장면에 어울리지 않죠? 이렇게 분위기관 전체적인 주제, 정서와 동일한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황앵’에 감정이 이입되어 있습니다.

② ‘긴 조으름’이라는 데서 한가로운 모습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④ ‘어적’에 청각적 심상이, ‘달’에 시각적 심상이 나타납니다.

⑤ ‘가는 곳곳마다 볼 만한 경치로구나.’에 화자의 감회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05 시의 특징

답 ③

‘목가적(牧歌的)’이란 전원적이고 한가로운 자연 속의 삶이나 그 속에서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외딴집에 사는 고독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목가적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죠. 대화적 구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① 노인의 귀 기울임에서 고독을 읽어 내고 귀뚜라미의 울음을 통해 노인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화자가 노인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외딴 집을 통해 노인의 고독한 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④ 달무리는 노인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노인의 처지를 느끼게 하면서 여운을 드러냅니다.

⑤ ‘마을’, ‘콩깍지’, ‘외딴집’이라는 시어의 반복과 ‘짚단, 짚오라기’, ‘새, 새들’, ‘울지요, 읊니다’의 반복과 연쇄가 리듬감을 주고 있습니다.

10 자연(물) 친화

01 ③ 02 ② 03 ③

01 두 작품의 비교 감상

답 ③

(다)에서 ‘멍석에 벼를 던들 좋은 해 구름 끼어 햇별을 언제 보랴’는 ‘멍석에 벼를 넣어 말린들 좋은 해를 구름이 가려 햇별을 언제 보겠느냐?’는 뜻으로, 벼가 있어도 방해물(구름)이 있으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나태한 고공들의 각성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이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죠?

①, ④ 유사한 자연의 이치, 곧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비슷한 두 자연 현상이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대구적 표현이 되겠죠?

②, ⑤ 화자는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고 기다림을 잃었을 때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고 믿고 있어요. 기다리지 않아도 봄이 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죠? 특히 봄이 ‘더디게’ 온다고 반복하여 강조함으로써 좀처럼 올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봄이지만 결국에는 오고 말 것이라는 화자의 신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답니다.

02 시어의 의미와 관계

답 ②

(다)는 국사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정사에 힘쓰지 않고 사리사욕만 추구하는 관리들을 집안의 게으르고 어리석은 머슴에 빗대어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여기서 ㉗ ‘구름’은 햇별을 가려 벼를 말리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㉘ ‘방아’는 벼를 찧어 백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니까 화자가 권면하는 일을 성취하게 하는 필수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②가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03 작가적 관점을 통한 작품 감상

답 ③

(가)의 ‘소리’는 곧은 소리로 저항과 올곧은 소리의 상징입니다. (나)의 ‘바람’은 불어오는 대상으로서 풀꽃들을 흔들리게 하면서 1연에 보이듯이 튼튼한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죠? 따라서 ‘소리’와 ‘바람’ 모두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들로 볼 수 없으며 부정적 의미를 지닌 것도 아닙니다.

① 폭포는 무서워하지 않고 떨어지는 ‘고매한 정신’으로,

다시 말해 ‘위대성’을 지닌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요.

② ‘슬픔’이나 ‘고통’이 바람에 날리면서 자신을 해집고 있다고 했으니, 관념을 구체화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④ 마지막 연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풀꽃들과 화자는 흔들리는 존재로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⑤ (가)의 ‘폭포’는 고매한 정신으로, 위대하고 숭고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의 바람에 ‘흔들리는 생명’들은 <보기>에 따르면 ‘동적 이미지’를 통하여 자유를 추구하는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11 미의식_자아와 세계의 관계

01 ③ 02 ② 03 ④

01 조건에 맞는 작품 찾기

답 ③

(가)의 ‘불’, ‘달’, ‘고산식물’ 등의 자연물들은 모두 ‘그’를 은유화하는 소재들로서 화자가 바라보고 지향하고 예찬하는 대상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장미와는 관련이 없고 ‘그’를 예찬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02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통한 작품 감상

답 ②

모든 문학 작품을 ‘자아와 세계’의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과 그 기본적인 구도가 ‘자아와 세계의 갈등, 괴리’라는 것은 ‘갈등’ 단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아버지와 창섭은 모두 ‘자아’이면서 서로에게 ‘세계’로서 작용하고 있어요. 특히 아버지의 경우 아들에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관철하고 있으므로 ‘장(壯)’의 느낌을 주고 있죠? 하지만 결코 아들(세계)에 대해 약자는 아니기에 ‘비(悲)’는 아닙니다. 모든 문학 작품이 4대 미의식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아 두세요.

① 창섭은 아버지와 갈등할 뿐 갈등을 해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을 통해 창섭이 세계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이는 땅을 팔아야 하는 근거의 하나로 내세운 것일 뿐 그런 세계를 고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④ 창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 갈등을 조정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⑤ 어머니가 ‘제발 아이들허구 한테서 살아봤음 원이 없겠다.’고 한 것은 손자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낸 것일 뿐 어머니가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03 화자의 상황과 정서 및 해학

답 ④

㉠의 상황을 보면 늙고 초췌한 자신의 모습에 한탄하는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를 조건에 따라 바꿀 때는 반드시 늙음에 대한 한탄이 있되, 해학과 달관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는 정서가 드러나야 합니다. 말하자면 골계미, 해학미를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겠죠? ④ 백발을 안타까워하지만 봄바람을 빌려 백발을 없애 보겠다는 비현실적인 언행에서 해학적인 달관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① ‘이 뜰’은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것으로, ‘지락’을 따르지 못하는 삶에 대한 자조가 드러납니다.

② 억울하게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작가가 임금을 그리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③ 신선 같은 생활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⑤ ‘구술’과 달리 변하지 않는 ‘끈’을 통해 임에 대한 굳건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문학, 표현의 원리

정답 | 본문 131쪽

12 구체적 형상화

01 ③ 02 ④

01 구체적 형상화의 효과

답 ③

이제 시어들을 ‘관념’과 ‘구체’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겠죠? 어떤 시어들이 더 강조되었느냐를 먼저 살펴보세요. <보기>는 ‘가슴속 고뇌’, ‘평화의 세계’와 같은 마음속 관념의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반면, [A]는 ‘가슴속 아우성’, ‘정갈한 자갈돌의 강변’이라는 구체적인 시어로 형상화하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시의 언어를 크게 나누면 이렇게 ‘관념적인’ 차원과 그것을 형상화한 ‘구체적인’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관념’과 ‘구체’라는 두 개념어를 통해 그대로 발견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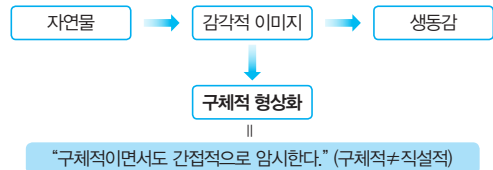
02 두 시의 구체적 형상화 차이 비교

답 ④

여러분, 이 두 작품은 주제가 같습니다. 두 작품 모두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죠? 그리고 제시된 시와 <보기> 중에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건 어느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동일한 작가의 작품이지만 <축규화>가 출제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고요? 이 시가 ‘구체적 형상화’가 더 뛰어나기 때문이죠.

두 작품의 주제는 같지만 <보기>는 1행에서는 ‘괴로이’라는 단어를 통해, 2행에서는 ‘나를 알아줄 이가 없구나.’라는 주관적 영탄을 통해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냅니다. 화자의 마음은 ‘만 리’로 달려가는데 그곳은 자신을 알아주는 곳입니다. 이에 비해 제시된 시는 오로지 ‘축규화’라는 대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고 화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연물(축규화)이 관심의 대상으로서,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참고 견디는 대상으로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축규화’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화자의 마음이겠죠. 대상을 그렇게 보는 자, 그게 화자예요. 화자 자신의 처지와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시된 시는 구체적인 자연물을 통해서 ‘구체적’이면서도

‘감각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화자의 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시된 시는 <보기>보다 훨씬 ‘구체적 형상화’에 성공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작품은 이처럼 직설적으로 정서를 확실하게 드러낸 작품보다는 자연물과 같은 대상을 통하여 간접적이면서도 암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서를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조금 음흉한 작품이죠. 그러나 결코 해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문학 창작의 원리에 비추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죠. 이런 작품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13 관념의 구체화, 구체의 추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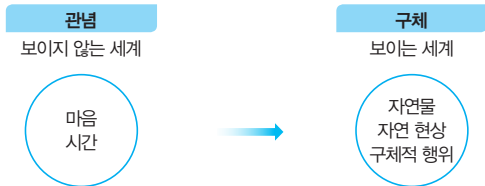
01 ⑤ 02 ③

01 비유의 양상

답 ⑤

‘깃발’은 ‘구체’와 ‘관념’ 중 ‘구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제시된 시에서 굵게 표시된 시어들은 모두 ‘깃발’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손수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깃발’(구체)을 관념에 대응시키고 있어요. ‘구체의 추상화’죠.

① ‘피’(구체)를 → ‘꽃’(구체)으로 비유한 것이고, ② ‘가슴’(관념)을 → ‘등불’(구체)로, ③ ‘마음씨’(관념)를 → ‘하얀 모래밭’(구체)로, ④ ‘중소리’(구체)를 → ‘분수’(구체)로, ⑤ ‘폭포’(구체)를 → ‘고매한 정신’(관념)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02 중심 소재의 특성

답 ③

이 시의 제목은 〈한(恨)〉입니다. 관념어죠? ‘한(恨)’은 슬픔과 상실감이 극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런 관념적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화자는 자연물인 ‘감나무’를 끌어왔어요. 화자는 감나무 열매의 ‘노을빛’ 색깔이 자신의 ‘서러운’ 사랑의 색깔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내 마음의 사랑의 열매’를 나무로 표현하자면 감나무쯤 될 거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러운 노을빛’으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감나무’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서러운 노을빛 — 감나무 — 내 마음’의 연결고리가 보입니까?

그리고 화자는 현존하지 않는 임의 부재를 ‘저승’의 이미지를 통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감나무가 되어 임이 계신 저승으로 뻗어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에서 나타나듯 임이 알아주리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슬픈 사랑으로서의 ‘한’입니다. 이처럼 ‘감’은 화자의 서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①, ②)이며, 저승 세계로 연결시키는 매개체(④)인 동시에 색채적 이미지로 시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③의 ‘성숙을 염원’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화자는 성숙을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을 통해서 자신의 서

글픈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논리적 해석이란 언어 자체를 놓여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자신의 과도한 상상력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창작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며 해석의 원리입니다.

14 주관적 변용

01 ④ 02 ④

01 주관적 변용이 드러난 시

답 ④

㉠의 '양춘(陽春)'은 따뜻한 봄별입니다. 이것을 부채로 부쳐서 임에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열망일 뿐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주관적 욕구가 바로 주관적 변용이라고 했죠?

'양춘'과 같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 ④의 '낙월'입니다. 화자가 지는 달(낙월)이 되어서 임 계산 창 안에 비칠 수는 없어요. 이는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죠? 그러나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어서라도 임에게 다가서고 싶다는 의지를 주관적으로 변용하여 표현한 것이죠. 이와 같은 주관적 변용은 관념의 구체화와는 별개입니다. 나머지 선지에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이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①은 이별로 인한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②는 두 왕조를 섬기지 않겠다는 지조의 마음을, ③은 꿈에서 신선과 만난 인연을, ⑤는 죽음을 각오했던 절의와 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2 구절의 효과

답 ④

이 시는 붉은 파발에서 돌아나는 푸른 새싹을 보며 새로운 사랑, 새로운 생명, 또는 새로운 가치에 대해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의 낡은 가치, 사랑이 소멸될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이뤄진다는 생명의 원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은 생명의 원리를 역설적으로 표현했어요. '연으려면 (과거의 것을) 잃어야 한다'는 뜻이죠. 과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이 탄생되지는 않으니깐요. 그러나 이것은 화자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대상을 인위적으로 변용시키고 불가능한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생명의 원리는 '자연의 섭리' 같은 것이므로 화자의 의지에 따른 '주관적 변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④에서 역설법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주관적 변용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에서 '목은 사랑이 /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 젖어 있을 때'라고 표현한 것은 '목은 사랑'과 '마음'이라는 관념을 '한복판에 젖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시각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맞는 말이죠? 이렇게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실감 나게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15 자연물 vs 인공물

01 ① 02 ③ 03 ③

01 두 시의 공통점

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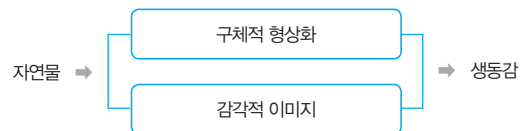
아주 직설적으로 감정을 드러낸 작품을 제외하고 '자연물'이 등장하지 않는 시는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 두 편의 시에서도 (가)에서 '산', '별', '뺨꾸기', '덜거기', '물닭', '갈밭', '갈새' 등, (나)에서 '술', '우로', '제비', '명월', '매화' 등 자연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죠? 정서는 이런 자연물들을 통해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화자의 현재 처지를 드러내는 차원으로 연결됩니다 (①). (가)는 산과 벌판에 '홀로' 있는 고독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 (나)는 유배자의 고달픈 처지(6장의 매화를 통해서만 반가운 마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답은 ①이에요.

② '시각의 대립'이란 곧 '관점의 대비'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와야 합니다.

③ '역동적 이미지'란 '휘날린다'와 같이 실제로 활발한 움직임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④ (다)에서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지만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명암의 대비'란 '밝음'과 '어둠'처럼 감각의 대비가 나와야 합니다.



02 화자와 대상의 관계

답 ③

㉡는 '별'은 별 소리로 들썩이는데 그 속에 '나 홀로' 있는 상황이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이와 유사한 상황을 (나)에서 찾으면 3장이예요. 3장은 귀양살이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으로, 제비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데 비해 화자는 귀양살이로 매어 있어서 한숨 겨워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냅니다.

1장의 '효제충신'은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 2장의 '술'은 정계에서 쫓겨나 귀양살이를 하는 화자, 5장의 '명월'은 화자의 벗, 6장의 '매화'는 임금에게 간언을 하다가 유배당한 화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화자는 먼 이국땅인 남국에서 온 파초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종이라도 된 심정으로 샘물을 길어 발등에 부어 줍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이겨 내기 위한 각오를 다집니다. 이것은 화자와 파초의 관계에서 화자가 파초를 돌보는 모성적 존재임을 보여 줍니다. 그 반대로 볼 수는 없겠죠?

①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는 파초를 돌보는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② ‘즐거 너를 위해 종이 되’고 싶다고 한 구절에서 파초를 아끼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④, ⑤ 화자는 파초를 위해 샘물을 길어 발등에 붓고, 차가운 밤에는 머리맡에 있게 하며, 즐겨 종이 되고자 합니다. 이는 화자가 파초에서 연민과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이것이 마지막 연에서 ‘우리’라는 시어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자는 ‘차가운 겨울밤’으로 상징되는 고난을 ‘우리의 겨울’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6 객관적 상관물, 의탁, 투영, 감정 이입

01 ⑤ 02 ⑤ 03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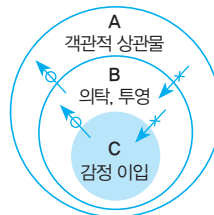
01 두 시의 비교

답 ⑤

① (가)의 종결형 어미 ‘한이던가’, ‘떨던가’, ‘반짝이던 것인가’와 (나)의 ‘내리는가’ 등의 의문형은 평서형보다 정서를 심화하고 강화합니다.

② (가)의 3연에서 오누이가 추위 속에 떠는 모습과 (나)의 4연에서 ‘잉크병 얼어드는 밤’을 통해 추위와 어둠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③의 경우를 통해 감정 이입의 개념이 매우 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의 처지와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면 감정 이입이 됩니다. 즉, 화자가 과거에 골방 안에서 손 시리게 떨었기에 그런 서러운 눈으로 올 엄마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것은 달빛 받은 옹기들처럼 글썽이고 반짝이던 마음이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자의 슬픈 마음이 그대로 ‘옹기’로, ‘엄마의 마음’으로 연결된 것이죠. 이를 통해 볼 때, 감정 이입이 꼭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물이나 인물까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C는 모두 B, A이나 모든 A는 B가 아니며, 모든 B는 C가 아닙니다. A는 B, C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고, B는 A에 속하는 충분조건이며, C는 B에 속하는 충분조건입니다.

⑤ (나)에서는 떠난 ‘고향’과 그곳에 두고 온 ‘너’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너’가 있는 곳은 ‘작은 마을’로 드러나나 화자가 있는 곳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역설적인 효과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역설적인 효과’란 모순된 표현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02 시어의 의미

답 ⑤

화자의 분신, 변신의 대상은 화자의 마음이 투영, 의탁된 것입니다. ‘만장송이 되어’, ‘금강산 학이 되어’, ‘매화 되어’ 등은 모두 주어가 화자입니다. 또한 ‘침변에 시드는’은 ‘베갯머리에 시드는’이라는 의미로 그 주체는 설중에 혼자 피어 있는 매화, 즉 화자 자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침변에 시드는’은 임이 처한 현재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라고 해야 적절합니다.

03 객관적 상관물의 의미

답 ④

(가)에 등장하는 ‘봄비’, ‘찬바람’ 같은 자연물들은 모두 3행의 ‘뜬시름’을 드러내기 위해 동원된 것들입니다.

연못에 소리 없이 내리고 있는 ㉠ ‘봄비’는 화자의 쓸쓸함을 자아내는 배경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쓸쓸하다’라는 감정의 표현을 덧붙이지 않아도 화자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바, ‘봄비’는 화자의 감정을 구체적인 대상을 통하여 표현한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찬바람’ 또한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습니다.

㉢ ‘백구’는 화자가 자연과 일체가 된 물아일체의 경지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 ‘미화’는 화자의 지조와 연군지정을 드러내 주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하지만 ㉤ ‘적설’은 ‘쌓인 눈’으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저 객관적 정보일 뿐입니다. 단지 계절적 배경이 되는 자연물로서 객관적 상관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답 | 본문 168쪽

17 감각적 이미지, 공감각, 음성 상징어

01 ④ 02 ④ 03 ⑤ 04 ① 05 ③ 06 ②

01 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이해

답 ④

이 글은 전체적으로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적설, 매화, 달’ 등이 시각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매화 향기인 ‘암향’이 후각적 심상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①과 ⑤는 후각적 심상(술 익는, 향취)이 나타나 있습니다.

②와 ③은 시각적 심상(빛깔, 흰 거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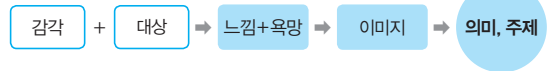
④만 미각적 심상으로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심상입니다.

02 두 시의 공통점

답 ④

문학 창작의 기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구체적 형상화’요, ‘감각적 이미지’라는 것 기억나죠? ‘자연물’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대상’이 나왔다 하면 그대로 ‘감각적 이미지’예요.

(가)는 일상의 곳곳에서 아내를 찾으며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형상화한 시예요. ‘넙치지지미 땀싸한 냄새가 / 코를 땀싸하게 하는데’, ‘땀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와 같은 감각적 심상을 통해 아내를 그리워하는 현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화자가 어린 시절 병을 앓을 때 눈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따 오신 아버지를 회상한 시로, ‘서느런 옷자락’, ‘산수유 붉은 알알’과 같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3 두 시의 이미지 비교

답 ⑤

㉠은 후각적 이미지인 ‘냄새’를 ‘서늘하게’라고 하여 촉각적 이미지로, 또 ‘피어오른다’라고 하여 시각적 이미지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각의 촉각화, 후각의 시각화가 되겠죠? 또 ‘질푸른 숲의 냄새’에서 시각적(질푸른) 이미지의 후각화(냄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 ‘내음새’(냄새)는 ‘조잘히 늙은 사나이의 고결한 정신’을 상징하는 시어입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정신적 세계를 ‘내음새’라는 후각적 이미지로 바꿔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 이미지로 변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

음새'는 세속적인 차원의 이기고 지는 것에서 벗어나는 초탈의 정신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말하면 '관념의 구체화'가 되겠네요?

04 구절의 표현상의 특징

답 ①

① ㉠ '긴 —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또한 해가 진다는 것이니 '하강'과 '소멸'의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접는다'는 서술어가 하강의 이미지를 나타내지요. 상승의 이미지가 되려면 '나래를 펼친다'라고 해야 되겠죠?

③ ㉠, ㉡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은 밤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방향을 잃은 화자의 슬픔과 고뇌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는 충효를 실천하고자 하지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버려서 충효를 이루지 못할까 봐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요.

④ ㉠은 해를 새처럼 생명을 지닌 것으로 표현했으니 활유법을 구사하고 있고, ㉡는 직유법입니다.

⑤ ㉠, ㉡는 시간의 흐름을 날개를 접는 것이나 물이 흐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미지의 문제 중 상승과 하강은 특히 자주 출제되는 개념임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05 제재의 효과

답 ③

이 글에서는 질화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추억들을 회상하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화로'는 이웃 노부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배경이 되면서(④), 글쓴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추억들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동시에(②),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글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①). 하지만 질화로를 통해 가난을 직접적으로 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③).

개념어와 관련해서⑤를 살펴보면, '질화로'에 청각(담뱃대 터시는 소리, 고서 읽으시는 소리), 시각(질화로 주변 풍경), 촉각(따뜻한 토장찌개)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감각적 이미지가 제시되어야 함을 잊지 마세요.

06 시어의 의미

답 ②

이미지 중에서도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 잊지 않았죠? '흐르는 빛'은 하강의 이미지에 해당됩니

다. 황촉불이 '녹고' 달이 '지는데'라는 서술어를 통해 하강과 소멸의 이미지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도 슬플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살아 있을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떠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빛'은 여승이 두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을 통해 번뇌에서 벗어난 것 즉, 여승이 지향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고요. 바라본다는 자체가 지향하는 것이고, 이는 곧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내면 세계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는 우리가 배웠던 세속적인 삶의 가치로부터 벗어나려는 태도, 즉 정신적 '초탈'을 보여 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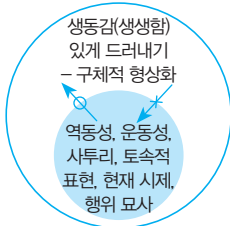
18 생동감 / 운동성, 역동성

01 ③ 02 ③ 03 ⑤

01 표현상의 특징

답 ③

- ① 단호한 어조는 ‘~해야 한다’, ‘~하라’ 식의 명령형이나 단정적인 판단에 해당됩니다. 그러한 어조는 없죠?
- ②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분명한 단서가 없어요.
- ③ 이 작품에서는 ‘빠꾸기, 강, 섬’ 등 자연물 자체가 감각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받아넘기고’, ‘밀어 올리는’ 등의 서술어가 운동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역동성’이나 ‘운동성’은 ‘생동감’을 형성하는 일부 요인들입니다. ‘생동감 있게 드러내기’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형상화된 모든 문학 작품에 해당되는 표현의 특성입니다!

- ④ ‘대립적 시각’이란 ‘삶 : 죽음, 긍정 : 부정, 지향 : 거부’ 등과 같은 뚜렷이 대비되는 요소 및 그에 따른 견해가 등장해야 합니다. 그런 요소는 없어요.
- ⑤ ‘긴장감 있게’ 의미를 제시한다는 것은 역설적 표현이나 대비, 전환과 같은 이질적인 요소들과의 결합을 통하여 독자가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긴장감의 요소가 제공되는 것을 뜻합니다.

02 구절의 표현상의 특징 비교

답 ③

- ① ㉠은 임파의 이별로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슬픔을 이겨 내겠다는 의지의 다짐으로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고, ㉡은 이전까지 화자가 느끼지 못하던 것을 어느 순간 깨닫는 부분입니다. 나뭇잎이 지듯이 우리도 언젠가 저처럼 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둘 다 시상의 확산과는 거리가 멀겠죠? ‘시상의 확산’이란 시의 정서나 내용의 범위가 점층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 민족적인 차원으로 점차 생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② ㉠에서는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러한 슬픔을 이겨 내겠다는 화자의 의지는 직설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에서도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서술해 놓았을 뿐 화자의 감정이 직설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직설적으로 드러나려면 ‘기쁘다’, ‘괴롭다’와 같은 서술어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③ ㉠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에서 화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통해, 화자가 슬퍼하기만 했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임을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에서는 단지 묘사만 나타날 뿐 화자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죠.

④ ‘들어부었습니다’와 ‘떨어졌다’의 두 서술어 중 역동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전자겠죠? ‘역동적인 느낌’이란 그야말로 느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의 차원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⑤ ㉠에서는 관념적인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붓는 행위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에서는 사실의 기술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3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답 ⑤

처녀에게 구애하기 위해 스무 날 밤을 찾아간 것은 순수한 집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제시문상으로는 처녀가 거절했기 때문에 사랑을 이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① 서술상으로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장면 제시로 생동감 있는 묘사를 보여 주기도 합니다.

② 운중가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있고 이어서 심생이 처녀의 집까지 따라간 것은 공간의 이동으로, ‘장면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진감(迫進感)’을 줍니다. ‘박진감’이란 실제 일어난 것처럼 ‘사실성’과 ‘현실감’이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동감과도 상통하죠.

③, ④ 양반층인 심생과 중인층인 처녀의 우연한 만남과 처녀가 심생의 마음을 거절하는 상황을 통해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욕구와 신분의 차이로 인한 사랑의 제약 등 당대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 세계의 자아화, 내면화, 주관화

01 ② 02 ⑤

01 작가적 관점을 통한 작품 감상

답 ②

〈면앙정가〉를 단순히 자연 배경을 묘사한 것으로만 보지 말고 〈보기〉에 나타난 것처럼 ‘세계의 내면화’ 방식으로 해석하라는 문제입니다. 즉 작가 송순에게 ‘면앙정’은 하나의 ‘우주’로서 ‘심성을 수양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공간’이며,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고, 자연물에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함으로써, 이상적 세계관을 표출하는 세계로 내면화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바로 ②죠? ‘작가의 조바심’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이니까요.

① ‘무변대야’는 끝없이 넓은 들판으로 그런 곳에서 무슨 ‘짐작’을 한다는 것은 작가의 이상이 높음을 드러냅니다.

③ ‘두 날개를 벌리는 듯하다’는 비상하려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 것입니다.

⑤ 추월산의 여러 산들이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서 있다고 한 것에서 다양한 형세의 산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 또한 짐작할 수 있습니다.

02 사상 전개 방식

답 ⑤

이 문제도 ‘내면화’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관건입니다. 이 시에서 화자는 장수산에서 지고 이기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스님의 초탈적 삶을 보고서 ‘나’도 갈등을 극복해 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나 인물 등 대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곧 내면화입니다. 따라서 답은 대상을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낸 ⑤입니다.

① 대상을 통한 깨달음이나 극복 의지가 아니에요. ②, ③ 대상의 객관적 모습일 뿐이고, ④ 자신의 깨달음이나 극복의 의지와 거리가 멀죠?

20 암시와 복선

01 ② 02 ③ 03 ⑤ 04 ③ 05 ④

01 암시하는 말의 의미

답 ②

‘북곽 선생=여우’라는 등식으로 놓고 볼 때, ‘다섯 아들이 여우에 대해 하는 말과 행동=북곽 선생의 성격과 행위’를 암시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여우가 북곽 선생인 것처럼 시늉한다는 것은 현재 눈앞에 있는 북곽 선생은 선비로서의 품격이 없다는 뜻이 되고(①), 여우의 신발이 그림자도 감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북곽 선생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③). 또 여우의 꼬리는 북곽 선생이 범 앞에서 아부하는 모습과 연결되고(④), 여우를 잡아 죽이자는 말을 통하여 북곽 선생이 봉변을 당할 것이라는 암시(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②에서 여우의 갓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다섯 아들이 여우를 잡아 그 갓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 북곽 선생이 부를 이용하여 높은 벼슬을 얻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02 작품의 표현과 내용

답 ③

‘부엌에 널빤지 조각을 내려놓는 아내의 모습, 강당에서 노래하는 여학생 시절 아내의 모습, 결혼 피로연 때 노래하는 아내의 모습’의 세 화면이 연속으로 중첩되면서, 과거의 행복했던 상황이 현재의 가난하고 힘든 상황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①). 또한 과거 상황과 대조해서 철호 아내의 꿈이 좌절됐음을 암시하고 있고요(②).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라는 철호의 말에서 가난 때문에 아내를 고생시키는 것에 대해 내적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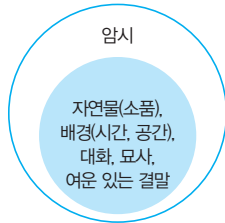
하지만 소도구를 통해서 철호의 이중적 성격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③). ‘이중적 성격’이라고 하려면 양면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철호는 아내가 고생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희곡이나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인물의 대화, 행위 묘사, 독백 등을 통해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암시합니다. 여기서는 ‘널빤지’ 같은 소도구를 이용해서 상황을 암시했죠.

03 배경의 의미

답 ⑤

[A] 부분에 주로 표현된 것은 배경과 인물들의 행위입니다. 이를 통하여 인물들의 심리와 상황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 서술자는 결코 '칠복이와 그를 보내는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시간, 공간, 자연물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암시하고 있죠. 이를테면 '미루나무'에 비가 내리는 모습,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장면은 이별의 아픔을 암시하는 배경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①처럼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물, 시간, 공간에 대해 언급한 것이 곧 ②입니다. 감각적인 어휘를 통해 이별의 분위기를 고조하는 것이죠. 밤이요, 가을인 시간 배경 역시 슬픔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③이에요.

우연히 표현된 듯이 보이지만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쫓아대는 것은 곧 칠복이를 보내야만 하는 마을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④의 '명멸하는(꺼졌다 켜졌다 하는) 불빛'입니다. 마치 총을 맞는 것만큼이나 섬찟섬찟하다고 했지요? 그러나 ⑤ 봉구네 주막에서 신작로를 향해 걷는 것을 '공간의 이동'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인물 간의 갈등의 심화로 볼 수는 없습니다.

04 소재의 역할

답 ③

전쟁에 나갔던 천달이 죽어서 유골이 되어 돌아오게 되자 ㉠ '(순녀의) 울음소리'가 마을에 진동하고 비극적인 분위기가 ㉡ '밤'과 ㉢ '별건 불길(붉은 노을)'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밤'은 시간적 배경으로, 양 생원네 식구들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슬픔과 비극이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낼 뿐, 앞으로 있을 불길한 사건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죠(③)?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05 작품 속 상황에 대한 이해

답 ④

천달의 유골을 받으러 가는 곳이 '읍내'입니다. 아이는 영문을 모른 채 왜 읍내에 가느냐고 지속적으로 묻지만 순녀와 할아버지는 천달의 죽음을 차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와 같은 대화의 양상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어요(④).

① 말이 없는 어른들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로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 어른들이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어린이에게 전쟁의 잔혹함을 알려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위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어요.

③ 어른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 있을 뿐,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⑤ 아이가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은 슬픈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1 낱말로 연결되는 이미지

01 ① 02 ⑤ 03 ⑤ 04 ③

01 시어의 이미지

답 ①

자하문 근처의 자연 속에서 자연물들을 보면서 이를 닮아가려는 삶의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는 시입니다. 화자는 각 연에서 ‘수풀’, ‘시냇물’, ‘실과’, ‘초록별’, ‘향나무’ 등의 소재를 통해 자기와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재는 화자의 삶이 지향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연물이라는 점에서 의미적인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수심가(愁心歌)’는 ‘서러운 노을’ 같은 것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양 하늘’과 ‘노을’ 역시 슬픈 배경일 뿐으로, 화자가 닮고 싶어 하거나, 화자와 일치되거나,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02 시어의 이미지

답 ⑤

화자가 생각하는 고향의 모습은 밝고 활기차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집에서 나오는 ‘빛’이란 밝음의 의미지입니다. ‘노랑나비’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 고향에 와야 할 바람직한 대상이죠. ‘꽃불’은 담배 파이프에서 나오는 담뱃불로 밝음의 이미지입니다. ‘소금’은 옛날 창문마다 고향 사람들의 눈동자에 어린 찌디잔 눈물로, 고향 상실과 그리움으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림자’는 고향 사람들의 고달픈 모습이고 어둠의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강’은 차디찬 것으로서 고향의 고달픈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무덤’은 고향의 황폐한 모습, 어두운 현실로 ‘어둠’의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무덤’—‘소금’—‘강’은 모두 어둠의 부정적 이미지로 낱말로 연결된 시어들임을 알 수 있겠죠?

03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

답 ⑤

의미상 대조되는 ‘흐름(유동성)’과 ‘고정(정지)’의 이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람’과 ‘강물’은 흘러가는 대상으로서 유동적이며 일시적인 것이고, ‘반석’과 ‘언덕’은 정지해 있고 튼튼하며 지속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변민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의 생각은 바람이 불어오는 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람’은 화자를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여자를 사랑하거나 시대를 슬퍼하지도 않는 ‘나’는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이

흐르는데 화자는 반석 위에 서 있고, 언덕 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바람’과 ‘강물’의 흐름 속에서 ‘나’는 ‘반석’과 ‘언덕’ 위에 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갈등하고 성찰하는 시입니다.

04 시어의 이미지

답 ③

‘양심’을 변하지 않는 ‘은빛 금속’에 연결시켜 그 속성을 드러낸 작품이죠? ㉠ ‘은빛’이나 ㉡ ‘파편’, 그리고 ㉢ ‘금속성’이나 ㉣ ‘무기’는 모두 ‘양심’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의 ‘등불’은, (다른) ‘모든 것’이 향하는 대상이지만 ‘양심’인 ‘너’만은 향하지 않는 대상이죠.

즉 이것은 ‘양심이 아닌 것들’이 취하여 향하는 대상으로서, 부귀나 명예와 같은 세속적인 밝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22 시적 긴장

01 ① 02 ②

01 표현상의 특징

답 ①

시의 제목을 볼까요? 제목은 <가을>인데 시의 출발은 ‘봄’으로 하고 있죠? ‘봄’과 ‘가을’이 짝을 이루면서 ‘의미’와 ‘감각’의 대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봄과 가을의 대립적인 이미지들이 과감하게 등장하면서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집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다름 아닌 ‘시적 긴장’입니다! 예를 들어 ‘봄 — 땅 — 숨결’의 이미지와 ‘가을 — 하늘 — 차가운 물결’의 이미지가 대립을 이루면서 각각 연결되고 있죠? 이러한 봄의 이미지는 또 다시 ‘꽃잎 — 살’로 이어지고 가을은 ‘별 — 보석’으로 연결됩니다. 봄의 이미지가 ‘지상적이고 화사하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데 비해, 가을은 ‘천상적이고 차갑고 과묵하고 가치롭고 사려 깊은’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 땅(지상) ↔ 하늘(천상)
- 숨결(감성, 따스함, 부드러움) ↔ 물결(이성, 차가움)
- 꽃잎 - 살(감각적, 부드러움) ↔ 별 - 보석(시상적, 딱딱함)
- 눈동자 만(봄의 화사함) ↔ 입술을 다문(가을의 침묵, 묵중함)
- 노래(낭만적, 감상적) ↔ 언어의 배후(명상적, 본질적 가치)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연거푸 등장함으로써 감각의 대비뿐만 아니라 의미의 대비를 통해 시적 긴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적 긴장은 이렇게 상반되거나 관계없는 것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정서적으로 낯선 느낌을 줄 때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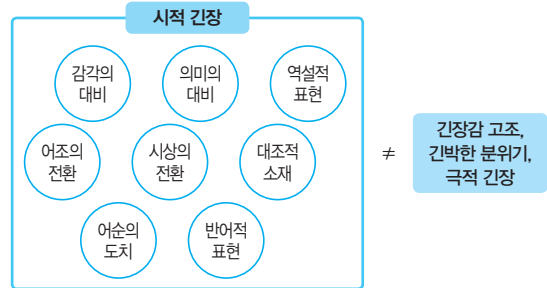
02 표현상의 특징

답 ②

이 시는 식료품 가게에 진열된 ‘복어’라는 소재를 통해 현대인의 무기력한 일상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화자는 딱딱한 복어의 모습을 통해 무기력한 인간의 삶을 떠올리고, 이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느닷없이’에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관심의 초점이 복어에서 화자로 옮겨지는데, ‘거봐, 너도 복어지’라는 부분에서 화자는 그러한 복어의 모습이 곧 자기 자신의 모습임을 확인하고 이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판의 주체가 비판의 대상으로 반전되면서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갑작스런 시상 전환이 이루어져 정서적으로 낯선 느낌을 줄 때도 시적 긴장감이 유발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복어가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는 것은 과거 시제이죠? ‘생생한 현장감’이란 상황이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그녀가 내게로 온다.’에서처럼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 중의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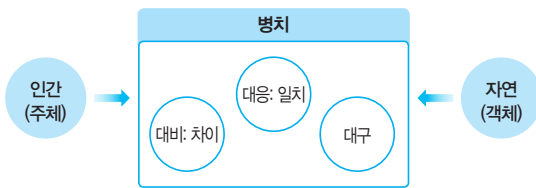
23 대응, 대비, 병치

01 ④ 02 ③ 03 ② 04 ④ 05 ⑤

01 시상 전개 구조

답 ④

이 시는 더 이상 뻗어 갈 데가 없는 환경에서도 줄기를 뻗어 꽃을 피우는 나팔꽃의 생명력에 주목하여, 인간의 삶도 이와 같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바로 ‘자연(물)’과 인간의 삶을 대응시키고 유추한 것이죠? A에서 C까지는 나팔꽃의 생명력을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다가(외적 대상에 시선을 둠,) D에서 인간의 삶의 의미로 시선을 이동하며 자연과 인간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에서 아픔과 고난을 통해 나팔꽃이 종과 같은 꽃을 피우듯 인간도 아픔 속에서 희망의 종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요. 따라서 ④ ‘D에서는 자연물과 인간의 대비가 병치되어 드러나고’ 있다고 한 것은 틀린 말이죠?



02 시상 전개 특징과 효과

답 ③

시의 중심은 화자입니다. 시는 가장 기본적으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화자는 책을 정리하면서 ‘나는 홀로 무얼하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돌아볼 때 학문의 성과가 없었음을 한탄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책은 수확의 계절인 가을날의 해질녘에 수확의 기쁨에 들떠 있는 농부들과 ‘갈가마귀’, ‘해오라비’와 같은 자연물의 모습과 대비되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자연의 모습(외부 세계)을 보며 학문적으로 숙원을 이루지 못한 자신(내면)을 돌아보고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세계와 내면의 대비’로, 이 시는 화자의 학문 성취에 대한 자아 성찰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03 표현상의 특징

답 ②

‘사청사우’는 잠깐 개었다 내리는 비로, 번덕스런 날씨를 가리킵니다. 화자는 세상 인정도 이와 같다고 하여 ‘자연’과 ‘인간’의 대응을 통해 세상의 번덕스러운 인심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은 ‘나’를 헐뜯고 공격하지만 산은 다루지 않는다 하여 ‘자연’과 ‘인간’의 대비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인간 세계가 각종 이해관계로 인해 변화무쌍한 곳이어서 집착하며 살 곳이 못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① ‘인간과 자연의 대응’도 맞고, ⑤ ‘세상과 자연의 대비’도 맞습니다. 또 대응이나 대비는 병치이므로 ③도 맞습니다. 그러나 화자의 처지를 자연과 대비하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②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04 구절의 특징과 효과

답 ④

감각의 대비와 의미의 대비를 구별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서 ‘도화, 행화, 석양’ 자체가 색채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는 ‘녹양, 푸르다’와 색채의 대비를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가)의 ㉡ 역시 ‘누런 해, 흰 달’ 등이 색채의 대비를 이루면서 감각의 대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미의 대비가 되려면 ‘삶 ↔ 죽음, 지향 ↔ 거부, 생성 ↔ 소멸, 긍정 ↔ 부정’ 등이 나와야 합니다. ㉢에서는 서민들이 죽었을 때 ‘지계 위에 거적 덮어 졸라매 메고 가’는 상황이, 부자가 죽었을 때 ‘오색실 화려한 휘장에 만인이 울며 가나’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음은 누구에게든지 오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죽음의 필연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에서는 ‘먹세그려’를 반복해 음악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05 서술상의 특징

답 ⑤

이 글에 나타난 ‘강물’이 객관적인 대상,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작가의 내면 의식이 투영된 대상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글은 강물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강물의 모습을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물 자체가 감각적이라고 한 건 잊지 않았겠죠? 가을의 강물은 ‘떠나가는 강물’로 우리네 삶에서 이별을 의미하고 있고, 겨울 강물은 허영계 얼어붙어 극한을 견디는 얼음입니다. ‘극한을 견디는 얼음’은 삶의 고통을 견뎌 내는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물이 객관적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름 강물은 ‘은비늘’, ‘환희’, ‘자맥질’로 이어지는 생명의 강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봄의 강물은 겨울 강물의 ‘침묵의 비수’, ‘단도’의 이미지와 다르게 조금씩 ‘숨결’로 다가와서 겨울 강의 ‘비수’, ‘단도’를 녹여 주는 강물입니다.

딱딱한 이미지의 겨울 강물과 봄, 여름의 생동감 있는 강물이 대비를 이루면서 선명한 이미지를 드러내고(④), 사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겨울이 오면 봄도 오고 삶도 그러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③). 이게 바로 ‘의미의 심화’입니다. 단순한 사계절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차원으로 깊어지고 있으니까요. 자연물인 강물의 계절마다의 속성을 삶의 의미에 대응시키면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②).

하지만 ⑤에서처럼 허구의 가상적 상황을 통해 생명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실제 강물의 모습을 여러 자연물에 빗대어 감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물을 주목하고 삶에 대응시키는 것 자체가 자연물에 대한 친화 의식을 드러내는 겁니다(①). 이런 선지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정리하면 문학은 거저먹을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어에 충실하자!

24 간접적 표현

01 ③ 02 ④ 03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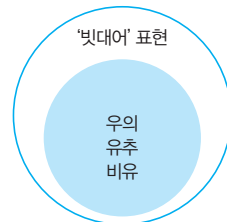
01 간접적 표현의 특징

답 ③

[A]에는 글의 중심 소재인 ‘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즉 글쓴이는 자신의 생각으로 ‘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①).

글쓴이는 [A]에서 ‘계’를 ‘해공’이라 했지만 그 위에서는 ‘무장 공자’라 하여 다르게 지칭하고 있는데요, ‘무장공자’란 이름은 ‘비애를 모르는 놈’의 의미로 쓴 것이고 ‘해공’은 ‘욕심 부리다 손해를 보는 놈’의 의미로 쓴 것이죠. 이는 이름에 따라 각기 다른 계의 속성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⑤). ‘해공’은 계를 한자로 높여 부르는 또 다른 이름으로서, 이를 통해 인간을 우회적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계를 낚기 위한 미끼에 욕심을 부리는 계의 속성을 이용해 손쉽게 많은 계를 잡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어리석게 욕심을 부리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죠(④). 이러한 교훈은 계라는 동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해당합니다. 사실 작가는 계에 빗대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자 했습니다(②). 이것은 앞의 개념어에서도 말한 ‘빗대어’의 정의와 연결됩니다. 앞에서 ‘빗대어’는 간접적으로 둘러서 말하는 일체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나 사실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고사 성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③). [A]에 ‘어부의 이(利)’ — 어부지리(漁父之利) — 라는 고사 성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실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계’를 끌어온 이유는 뭐죠? 그것은 인간을 비판하기 위해서죠. 사실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면 ‘사투리’를 사용한다거나 실제 대화나 행위 묘사를 그대로 제시하면 됩니다. 이 글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 세태 비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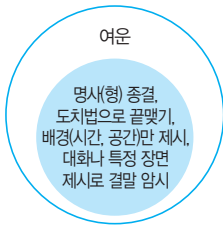
02 반영론적 관점을 통한 작품 이해

답 ④

선지들을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꼼꼼하게 보세요. ①은

〈보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가)는 김영랑 시인이 모국어로 시를 쓰기 힘든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 하였고, (나)가 쓰인 시대적 배경은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두 시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던 거죠.

②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시에는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가)의 마지막 연의 마지막 행에서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올들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극복 의지나 희망을 말하기보다는 고단한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 또한 마지막 연까지 '눈보라가 내리는 / 백색의 계엄령'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명사형으로 끝맺음으로써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당한 현실을 말하고 있을 뿐, 화자의 어떤 의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문학 작품에서 여운을 주기 위한 장치에는 제시된 것들 외에도 김중삼의 시 〈목화〉처럼 연결 어미와 심표로 시를 마무리함으로써(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 서로 적막하다고.) 여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가)의 '올지를 못한다'를 봅시다. 이 동사의 주체는 '기린'입니다. 어휘 풀이에서 '기린'은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기린이 '운다'는 것은 기린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의미일 텐데요, 만약 기린이 존재를 드러낸다면 이는 절망적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인'이 이 세상에 곧 나오게 됨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러한 기린이 스무 해 동안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올지 못했으므로, 시적 상황은 '성인'이 나올 조짐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에서 '운다'는 본래의 사전적 뜻과 더불어 '기세를 떨치다', '생명력을 발휘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로 쓰여서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또한 (나)의 '내리는'은 '눈보라'와 같이 쓰입니다. 그 구절을 가져와 볼까요? '눈보라가 내리는 / 백색의 계엄령'에서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빼고 생각해 보면 눈보라는 서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즉 '내리는'은 단순히 눈이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보기〉와 관련해 보면 당시의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온갖 동식물을 위협하는 눈보라에 빔대어 계엄령, 군단이라는 물리적 힘의 행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리다' 역시 억압적인 상황을 암시하므로 중의적으로 해석됩니다.

⑤ (가)의 '이리떼'와 '잔나비떼', (나)의 '솔개'는 각각 부당한 권력을 암시합니다. 기린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고 억압하며, 굴복세를 위협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④는 틀린 선지입니다. (가)에서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날 성인이 나타나 기린을 어루만진 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인은 기린을 울게 했던, 생명력을 떨치게 했던 고마운 존재이죠. 기린은 노인에게 외면당한 게 아닙니다. 또한 (나)에서도 '굴복세'는 '눈'에 쫓겨 가는 희생자일 뿐, 세상 사람들로 부터 외면당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심한 억측인 거죠.

03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심정

㉮ ⑤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보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향견문록』은 조선 후기 중인들의 전기를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보기〉에서 중인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는데, 그들은 불합리한 시대적 상황에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계층입니다. 따라서 중인들의 심정을 표현한 것을 찾는 것이 관건인 거죠. 그러면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① '효'에 관한 시조로 유명하죠. 소반 위에 놓인 감을 보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며 슬퍼하는 자신의 심정을 고사와 비교했습니다. 고사는 굴을 품고 가서 부모님을 드렸다는 효자의 얘기죠. 그러나 화자는 부모님이 안 계시어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한탄하는 겁니다.

② 〈매화사〉의 2수에 해당하는데, 연약하여 꽃을 피우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매화에 꽃이 피고 향내가 풍겨, 촛불을 켜 들고 밤늦도록 매화를 감상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의 강인한 의지와 높은 절개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③ 이 시조는 '군신유의(君臣有義)'의 유교 이념을 잘 보여 주는 작품입니다. 화자는 벼슬을 하지 않고 산중에서 은거하는 몸이지만, 임금에 숭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름 낀 별뿔'은 임금의 조그만 은총을 의미합니다.

④ 작가가 늘그막에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여 고향 산천을 바라보는 감회를 노래한 작품입니다.

⑤ 우선 현대어로 해석해 볼까요? '형산(좋은 옥이 나는 곳)의 박옥(갈고 다듬지 않은 옥)을 얻어 세상 사람에게 보이려 가니, / 겉은 돌이지만(갈고 다듬지 않아서) 속이 옥이라는 것을 알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 두어라, 언젠가는 알 사람이 없겠느냐? 지금은 그냥 돌인 듯이 가만히 있거라.'입니다. 이 시조는 옥과 돌이라는 자연물에 빔대어 존

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보기>에서 설명한 중인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 불만이 있었죠. 이를 생각하면서 다시 보면, 시조에서 말하는 ‘돌(박옥)’이 <보기>의 ‘중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종장은 중인의 이런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2. 중요 표현 기법들

정답 | 본문 244쪽

25 표현법①_비유, 상징

01 ③ 02 ⑤ 03 ③ 04 ② 05 ①

01 시에 나타난 표현

답 ③

이 시는 비 내리는 정경을 독창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을 뿐,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확실하죠?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나머지 선지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1~2연은 비가 내리기 직전의 분위기를 ‘바람’과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내며, 3~4연은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5~6연은 빗물이 여울이 되어 흐르는 모습을, 7~8연은 그칠 듯 다시 내리는 소나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비 오기 직전부터 빗방울이 물줄기를 이루어 흐를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이 시는 전체적으로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고, 8연의 ‘소란히 밟고 간다’에는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④ ‘돌에 / 그늘이 차고’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종종 다리 까칠한 / 산(山)새 걸음걸이’, ‘갈갈이 / 손가락 펴고’ 같은 비유적 표현은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주관 이 가미되어 있는 묘사입니다. ‘모든 비유는 주관적이다.’라는 말 기억나죠? 4연의 ‘까칠한’, 5연의 ‘수척한’이라는 수식어들은 화자의 주관적인 내면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이 시는 주관과 객관을 아울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⑤ 이 시는 모두 16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행이 하나의 연을 구성하고, 각 연의 행들은 대부분 앞 행이 짧고 뒤 행이 더 길어지는 규칙적인 행 배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개의 장면을 보여 주면서 명사(바람, 걸음걸이, 물살, 빗뿔)나, 이렇다 할 설명 없이 장면을 그대로 비유한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서(‘손가락 펴고’) 여백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끝냄으로써 여운을 주는 것이죠.

02 구절에 대한 이해

답 ⑤

①은 후두둑하며 한두 방울씩 사선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걸음으로 달려가는 산새의 걸음걸이’로 비유한 것입니다. 빗방울을 산새가 가늘디 가늘고

윤기 없는(까칠한) 다리로 걷는 걸음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①, ③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한편 ㉠은 빗방울이 모여 물줄기를 이루어, 그것이 여러 갈래로 흐르는 모습이 마치 손가락을 편 듯하다고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 ㉡을 앞에서 배운 비유의 성립 조건인 원관념과 보조 관념으로 정리해 봅시다. ㉠의 원관념은 '비 내리는 모습', 보조 관념은 '새의 걸음걸이'입니다. 그리고 ㉡의 원관념은 '흐르는 빗물의 모습', 보조 관념은 '손가락'이 됩니다. 이것은 시각적 이미지로서 청각적 이미지가 아닙니다 (㉣).

03 원형적 상징 답 ③

'원형적 상징'과 관련된 문제이고 쉽습니다. <보기>에서와 같이 특정 대상이 상징하는 바는 여러 가지이지만 시 전체 내용과 관련지어 일치하는 내용을 토대로 대상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보기>의 '물'은 죽음과 재생의 양면적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 중에서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물'은 현대 사회의 병폐로 인해 사라져 버린 가치를 상징하는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는 존재입니다. 즉, '물'은 새 생명을 부여하는 의미로, '정화와 재생'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04 관습적 상징 답 ②

관습적 상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관습적 상징'은 특정 사회나 문화적 집단에서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상징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문학 작품에서 '도화(복숭아꽃)'를 이상향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동양의 고전 『도화원기』에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둔 것입니다. 『도화원기』에 어느 한 어부가 강물에 떠내려오는 복숭아 꽃잎을 보고 따라가다 이상향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숭아꽃은 이상향을 연상하게 했고, 한국 고전 문학에서 신선 세계, 이상향의 관습적 상징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05 표현상의 특징 비교 답 ①

비유와 상징의 표현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시 표현법의 1순위를 들라면 '비유'와 '상징'이죠? '비유'에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활유법, 대유법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와 (나)를 살펴볼까요? (가)에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와 같은 직유법이 쓰였고, '거미집(화자가 처한 어려운 현실)', '꿈길(자유, 독립)', '바람(교목을 억압하는 존재)' 등의 상징적 시어를 통해서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비유와 상징이 쓰였죠?

(나)에도 역시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산림처럼', '푸른 산처럼'과 같은 직유법과 '푸른 하늘(미래에 대한 이상과 희망)', '푸른 별(미래에 대한 이상과 희망)' 등의 상징적 시어를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 내고자 하는 굳센 삶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② '어조의 변화'란 각 연에 쓰인 종결형 어미가 규칙적으로 전개되다가 어느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두 편의 시 모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에서는 '말아라, 아니라, 못해라'로 끝을 맺음으로써 일관성 있게 드러나고 있고, (나)에서는 '송고한 일이냐, 기쁜 일이냐, 밟았거니, 일과이거니'가 반복적으로 연결될 뿐 어느 부분에서도 어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26 표현법②_도치, 설의, 대구, 점층, 연쇄, 반어, 역설

01 ④ 02 ⑤ 03 ① 04 ③

01 표현상의 특징

답 ④

고전 시가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꼭 기억하라는 말 생각나죠? '대구'와 '설의', 이 두 개가 고스란히 나온 문제입니다.

- ①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흥이야 다를쏘냐' 등에서 설의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자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② '색채의 대비'와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한 계절감'이 드러나는 곳은 '도화행화(桃花杏花)는 ~ 푸르도다' 부분입니다. 대구도 나타났죠?
- ④ '풍자적 표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 ⑤ '시간의 흐름'은 '옛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02 표현상의 특징

답 ⑤

점층적인 강조의 표현법을 갖춘 시입니다. 먼저 이 시는 '바닥에 떨어진 눈'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의 이미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⑤). 단지 '눈'과 '기침(가래)'의 이미지가 대립 구조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눈'처럼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④).

이제 앞에서 배운 개념어와 관련하여 선지 ③을 봅시다. '통사 구조'는 '문장 구조'와 같은 의미임을 생각하고, 앞에서 배운 '점층'의 개념을 연결지어 봅시다. '통사 구조의 점층적 반복'은 '문장 구조가 점점 확장되면서 반복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시를 봅시다. '눈은 살아 있다. /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로 볼 때, '눈은 살아 있다.'라는 기본 문장이 반복되면서 () 안의 수식어가 첨가되며 점점 그 문장이 반복,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갖추고, 시적 의미를 선명히 하는 효과를 얻고 있지요.

03 시상 전개 방식

답 ①

설의적 표현을 전통적 표현법으로 주목하라고 앞에서 강조한 말 기억나죠? 역시 설의적 표현이 또 출제되었군요. 설의법이란 익히 아는 사실을 의문 형식을 취해 표현하는 방

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에서 설의적 표현을 찾아 봅시다. '내 마음 모를소냐', '하물며 너 잡으랴'가 의문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의문 형식을 통해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설의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①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보다 중요한 오답을 검토해 봅시다.

- ② 이 시의 표현은 계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③ 이 시는 '백구'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여러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④ 이 시는 '만경창과는 모두 다 금빛이라'처럼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각적 이미지 위주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 ⑤ 이 시는 외부 대상 묘사 위주가 아니라 화자의 심리 묘사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⑤번 선지는 무엇을 중심으로 표현한 것인가를 다룬 것으로, 매우 중요하여 거듭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정답보다 중요한 오답입니다.

04 반어적 표현이 드러난 사구

답 ③

앞에서 배운 개념을 생각하며 <보기>를 읽는다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감춘 채 아예 반대되는 표현을 쓰고는 시치미를 떼는 경우'가 '반어적 표현'을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나와 있듯이 반어적 표현을 찾기 위해서는 시상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 내야 합니다.

이 시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정신적 가치가 외면되는 현실을 비판, 풍자하고 있는 시입니다. '홀륭한 비석'은 다른 아닌 물질 중심적 사회에서 돈으로 세운 기념비입니다. 비석의 주인공은 시, 소설로 대변되는 교양과는 담을 쌓은 채 돈만 많이 벌어들인 사람으로, 그 돈으로 문인을 통해 자신의 비석을 세운 사람이죠. 결코 '홀륭'하다고 할 수 없는 비석이죠?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시인이 쓴 '묘비명'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문인마저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소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륭한 비석'은 반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